

서평

## 성경의 한계 내에 있는 기독교 철학

Christian Philosophy within Biblical Bounds

- Theodore Plantinga, Inheritance Publications, 1991 -

류의근(신라대학교, 철학과 교수)

저자의 서문에 따르면, 총 114면의 이 책은 학부 과정의 철학 입문을 다년 간 강의한 결과로서 성경의 계시와 철학 일반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철학을 소개하고 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철학을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이드 라인을 기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 철학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새로이 개념 정립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철학 입문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러한 목적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평이하게 써어져 초보자가 읽기에 수월하고 매우 유익한 책으로 평가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장별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소감을 제시하겠다.

1장 “기독교적”이라는 용어/ 2장 성경이 보는 철학/ 3장 철학과 문화/ 4장 철학과 사회/ 5장 철학과 세계관/ 6장 철학과 형이상학/ 7장 철학과 언어/ 8장 철학에서 사용되는 성경/ 9장 구성적 철학/ 10장 비판적 철학

/ 11장 철학과 일반 은총/ 12장 참여, 자기화, 주석/ 부록: 보기, 듣기 그리고 말하기

“기독교적”이라는 용어에 대한 저자의 정의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어떤 사상(가)이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데 우리가 동의한다는 점에서 그 사상을 기독교적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상이 기독교적이라고 불리운다 해서 그 원천이 기독교적일 수 없기 때문에 반기독교적 사상도 기독교적이라고 간주될 위험이 있는 정의이다. 따라서 이 정의에는 성경적 기원, 원천, 혹은 성경적 진리에 대한 위탁이 요구된다. 즉 “기독교적”은 기독교 문화와 지적 전통 혹은 원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당연히 이러한 정의에는 사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비판적 판단과 평가 또는 해석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성경은 철학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신약에 나타난 철학과 기독교와의 만남은 바울이 아테네 도시 광장에서 전한 복음에 대한 당대 철학자들의 반응에서 적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그 당시의 철학이 현대의 철학적 사조와 학파와는 많이 다르지만 바울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대로 철학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역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철학들이 복음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도서, 잠언과 같은 구약의 지혜 문학은 학문의 형태로서의 철학은 아니지만 철학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적대적인 것만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과 양립가능한 철학을 받아들이고 구축하는 것이 온당한 태도이다.

이러한 철학을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화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환경이다. 철학은 인간 문화의 일부이고 문화로부터 성장하고 문화를 확장 발전시키기 때문에 기독교적 철학은 현재의 문화적 환경과

흐름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오늘날의 철학은 여타의 문화 분야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성경과 철학 사이의 단순한 관계 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삶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철학의 다양한 모습을 적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적실성 있는 복음의 전도사 노릇을 할 수 있는 기독교 철학의 개발이 요구된다.

철학자의 역할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정화 작업에 있었다는 사실은 철학사의 초보적인 상식이다. 가장 고전적 실례가 소크라테스이다. 과거보다는 철학자의 비판적 역할이 감소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제자들의 영혼을 돌본 것처럼 그리스도인 철학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의 영혼을 돌보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과학과 지식의 중립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대단히 중요하다. 초·중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학적 지식의 도덕적, 영성적 중립성 신조가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흔히들 기독교 철학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해하곤 한다. 기독교 철학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접근하는 유형에 따르는 난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자각인데

우리는 한 번에 어느 부분만을 볼 수 있고 기독교적 관점이나 조망으로는 전체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시대와 환경의 차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호 일치를 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기독교 세계관은 시각적 경험을 실재 인식의 획득 양식으로 너무나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본다는 것, 그리스어로는 이론을 뜻하는 테오리아는 실재를 방해 없이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봄을 인식의 주된 원천으로 받아들이면 서 서양 세계는 들음을 인식 방식으로부터 배제하게 되었다. 성경은 들

음으로써, 신은 경청됨으로써 알려진다는 기독교의 두드러진 인식 방식이 정당한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는 기독교 철학이 세계관으로 이해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철학은 형이상학이다. 따라서 기독교 철학은 기독교 형이상학이라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형이상학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 이론을 구축한다. 형이상학은 그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체계를 총체화하면서 진리와 중요한 통찰에 대한 다른 주장들을 배제하는 독단적 성향을 보여주었다. 형이상학은 유한한 인간 사유의 일면을 절대화하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경험과 차원들에 대하여 폐쇄적 태도를 취했다. 기독교 철학은 이러한 형이상학의 총체성과 독단성을 범하지 않고 형이상학적 담론에 참여하는 가운데 형이상학자를 설득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을 창출하는 과제를 가진다.

언어와 관련하여 기독교 철학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모든 철학들과 협력해야 하고 세속에 물든 언어의 영적 미혹을 밝혀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많은 언어들에 보호하고 그 의미를 일반 사회를 향해 설명해야 하고 그러한 개념들의 타당성과 권위와 중요성을 정당화해야 한다. 신앙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신의 섭리, 은혜, 영과 같은 천상의 언어들 의미의 공공 영역에 전파하는 임무도 있다.

성경은 철학에서 더욱더 많이 인용되고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철학적 반성과 담론의 영역에서 많은 성구들이 현대 사상과 지적 쟁점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성경은 고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게 풀어내어야 한다. 기독교 철학은 인간의 문제, 존재의 본성과 지위의 문제 등과 같은 철학적 문제를 다룰 때 성경의 가르침을 원용해서 그것을 철학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그래서 세상 철학을, 인류의 문화적 지적 전통과 통찰들을 고려하면서 성

경의 계시에 비추어 지식과 실재를 일반적으로 고찰하는 철학으로 거듭 나게 해야 한다. 철학 연구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증언했던 계시들을 조금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드러내도록 연구해야 한다.

기독교 철학의 임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 철학이 구성적 철학이 되는 것과 비판적 철학이 되는 것이다. 구성적 철학은 몇 가지 과제를 가진다. ① 그리스도인으로서 철학하는 사람이 철학하면서 도덕적이고 영적 관심을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② 과학적 지식을 종합화하는 이론을 제공하고 광범한 주제를 망라하는 일반적 이론을 구축하는 것. ③ 철학과 과학의 상관 관계를 이론화하는 것. ④ 도덕적 규범적 논의와 언어에 깊이 관여해서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함으로써 도덕적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강하게 확증하고 사회 내에서 힘을 가지도록 하는 것. ⑤ 예술 분야에서 우상 숭배를 비판, 거부하고 예술의 인격적 차원을 인간 생활의 중요성으로 증거하는 것. ⑥ 종교 철학의 분야에서 영성과 예배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부요롭게 하는가를 반성하고 적시하며 신앙의 삶의 관점에서 종교 철학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 ⑦ 세상 철학을 성경의 지혜로 되돌려 놓아 개혁, 갱신하도록 하는 것. ⑧ 결론적으로, 기독교 철학은 모든 사람을 예수처럼 섬기면서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로 유인하는 삶의 양식, 지혜로운 생활 양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기독교 철학은 비판적 철학으로서 인간의 의지와 의식에서가 아니라 신의 의지와 뜻과 규범에 입각해서 인간의 문화 활동 전반에 대한 비판적 작업을 수행한다. 이것은 내적 비판이 아닌 외적 비판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비판에 되돌아오는 일반 사람들의 반감과 적대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근거가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기 입법성, 인간의 독립성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결함을 지적한다. 고전적 일레로, 소크라테스

와 같은 자기 영혼의 신뢰, 이성적 논증의 자기 정당성 그리고 그에 따른 지고한 삶의 양식과 그 이상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방식을 절대적으로 정초할 수 있다는 허위 의식이 인간 내면의 견고한 요새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음미하는 삶”은 인간 이성의 자율적인 자기 비판이 아니라 신율에 비추어져 검토되어야 한다. 나를 감찰하고 나를 알고 나의 생각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세상 철학을 비롯한 일반 문화를 기독교는 어떻게 보는가? 우선,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은총 속에 일반 계시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위대한 철학자의 저서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석가, 용수, 샹카라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계시의 통로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흄이나 러셀, 니체가 신적 계시의 통로로서 간주된다고 주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라지가 알곡은 아니다. 모든 조직된 인간적 문화 활동이 가능하겠지만 어떤 것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이 쉴더(Klaas Schilder)의 입장이다.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또다른 입장은 니이버(R. Niebuhr)의 문화 신학이다. 그는 비기독교적 철학과 문화를 기독교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니이버의 사상은 개혁주의 신학이 윤리적 문화적 문제에 적용되는 경우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아브라함 카이퍼의 기독교 철학도 그 정신에 있어서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변혁의 열매들이 우리 시대에 분명하게 목격되지 않고 현대의 서구 문화는 점점 덜 기독교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변혁시킨다는 입장은 죄의 문제와 힘을 가볍게

보는 잘못된 입장이다.

철학과 문화적 활동을 일반 은총의 것으로 보든, 일반 은총으로 주어  
진 변혁의 대상으로 보든, 일단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영역의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면, 그 죄악됨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학이라고 부르는 문화적 활동이 그런 류의 것  
이라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으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멀리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러한 이교 철학과 싸우는 것이 기독교 철학의 할 일이  
다. 이러한 철학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철학에 참여하고 열심  
히 연구하는 것이며 그러한 철학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  
이다. 이것은 기독교 철학의 구성적 측면의 또다른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문화적 주제와 활동들은 뚜렷하게 인지될 정도로  
기독교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참여  
(Participation), 자기화(Appropriation), 주석(Commentary)의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서로 변별되어야 한다.

(1) 그리스도인은 문화에 적절하게 참여하면서 문제의 해당 분야를  
변혁, 갱신 혹은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현실  
문화를 당연시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참여하고 있는 그 분야의 문화가 기독교화 되고 있는 중이라  
는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고 그로써 비판 의식과 거부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얼마든지 자기도 모르게 비판 의식이 무디어질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참여하면서 변혁 또는 갱신시켜 얻은 내용 또는  
결과가 기독교의 진리 또는 신의 계시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그래서 참여의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자기화를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보다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이다. 만일 내가 언어학 분  
야에서 정통하다면 이를 자기화해서 성경을 필요한 언어로 번역하는 데  
수월성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과 경제 분야, 간호와 의료

분야에서도 타당할 것이다.

(3) 자기화의 방식과는 다른 주석적 논평의 방식이 있다. 과학적 작업 또는 철학적 사상과 전통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방식으로 비판적 맥락에서 그것을 논평하는 것이 한 대안일 수 있다. 예컨대, 왓슨의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스키너의 행동주의 인간관을 기독교화하거나 기독교의 것으로 재구성하지 않고도 신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적 비판을 제시할 수 있다. 페미니즘이나 마르크스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방식의 취약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 학자에 의해서 많이 연구되지 못한 주제나 분야에 대해서 주석적 논평의 방식은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주석적 논평 방식이 적용되는 영역을 선정하는 문제이다. 자연과학, 수학, 컴퓨터과학에서 주석적 논평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기독교적 관점이나 세속적 관점에서 내용상의 실질적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윤리적 문제나 공학 윤리의 차원에서 주석적 논평이 개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자는 모든 그리스도인 교육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정도에서 그리스도적일 수는 없지만 그 중 그리스도인 전문 철학자는 학문적, 철학적, 문화적 이야기와 전통에 대한 기독교적 사고 방식과 내용의 발견과 전수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부록에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인식론적으로 정초하고자 들음 또는 증언을 인식 형식으로 정당화하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서양 철학사에서 봄은 가장 근본적이고 지배적인 인식 형식으로서 확증되었다. 이러한 봄은 스스로 보는 인간의 자율성을 신뢰하는 것을 함축하고 지식을 얻는 과정은 마음의 눈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봄은 시각적인 의식 이상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봄에는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판단, 해석, 맥락, 배경 지식 등과 분리될 수 없다. 그렇다면 판단, 들음, 들었던 것은 지식 형성 또는 획득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식 또는 진리가 들음과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무엇이 지식이기 위해 그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이 점에서 어떤 것을 아는 것은 그것에 관해 참되게 말하거나 증언하는 것 또는 증언할 수 있는 것인 셈이다. 바로 여기서 증언 또는 들음이 인식 형식 또는 방식일 수 있게 된다. 전통적 인식론이 우리의 많은 지식이 가지고 있는 전달적 성격에 충분하게 주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을 우리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만 정초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증언된 하나님의 말 즉 계시도 인식 형식 또는 원천일 수 있게 된다. 과학적 지식도 수많은 전해진 지식 망과 얽힌 채로 공적 지식으로서의 타당성과 권위를 가지듯 계시와 같은 종교적 주장 또는 믿음 혹은 확신이 지식으로서의 권위와 타당성을 가지는 것은 저러한 과학적 지식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토됨으로써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진리들을 이해하기 위해 굳이 일련의 시각적 비유나 비교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듣고 복종하는 말씀 즉 증언에 의해서 검토되면 된다. 이제 문제는 증언의 권위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적 지식들은 사람들이 본 어떤 것이 아니라 전해 받은 어떤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종교적 주장을 과학적 진리로부터 분리하는 이원론적 인식론적 기준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지식은 들음에서 올 수 있고 우리가 들은 것을 통해서 온다.

이 책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철학 일반,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철학, 철학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이해 등에 대하여 요점 정리를 잘 해주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총론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주

장들이 전개되었고 각론적인 부문으로 들어가면 논의의 여지가 비교적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첫째로, 저자의 개념 규정대로 철학을 인류의 문화적 지적 전통과 통찰들을 고려하면서 성경의 계시에 비추어 지식과 실재를 일반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으로 재규정할 때, 이러한 철학 개념은 세상 철학과 기독교 철학이 이원화된 현상에서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리되고 해결되며 조정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철학의 개념을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탐구를 통해서 올바르게 정립하는 과제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와 연관하여 기성 철학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도 필요하고 재구성을 위한 비판적 성찰, 서양 철학의 내적 개혁의 과제도 제기된다. 그리고 기독교 철학의 보편적 개념 정립의 문제는 국내의 기독교 철학의 일천한 역사를 감안할 때 좀더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집단적 철학 연구와 일정과 방향을 그리스도인 전문 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로, 성경과 철학 사이의 관계를 대립과 전투의 구도로만 시종일관할 수 있기에는 세상의 철학이 바울 때와는 달리 너무나 전문적으로 발전되어서 폐쇄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철학적 진리와 확신도 복음의 대상이라면, 그들과 대화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화는 해석학적 지평을 전제하고 근엄한 태도보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어떻게 하면 세상 철학과 대화해야 복음에 유리할 수 있는지도 점점해야 할 사항이다. 철학 앞에 복음을 제시하는 기술로는 바울처럼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하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접근하는 눈높이 작전이 그 하나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전문 철학자가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철학적 전공 영역에서

그 전공 이론의 견고한 요새를 파괴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나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을 시사한다. 국내의 현황에서 보면, 전문화된 철학 영역의 연구를 기독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셋째로, 그리스도인 전문 철학자는 자신의 전문 분야와 문화적 활동을 기독교적으로 접근할 때 참여, 자기화, 주석적 논평의 방식을 필요에 따라 채택할 수 있을 터인데, 이는 실제로 구성적·비판적 성찰과 섞이기 마련일 것이다. 기독교 철학 연구가 구성적 또는 비판적이어야 한다는 목적지향적 태도는 기독교 철학이든 철학 일반이든 연구자에게 자극을 주는 돋보이는 대목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철학 연구자에게 태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철학은 철학으로서 가르치고 복음은 복음대로 유기되어 있는 이러한 현대 철학의 이원화된 학문적 상황에서 철학과 복음을 묶어서 책임지는 태도로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이원화된 학문 활동의 경기 규칙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적 철학(학문) 활동자들에게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세상 학문 속으로 육화할 것을 경성하고 있다 하겠다. 또한 동시에 세상 학문의 연구자들이 똑같이 빠져 있는 학문 세계의 경기 규칙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바로 잡을 것을 건책하고 있다 하겠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철학의 은사에 따라 철학하고 있으니 철학하는 자는 철학하는 일로 주를 섬길 것이니라.

---

### 류의근 교수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고 버팔로 뉴욕주립대학교 교환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신라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서양 철학의 개혁을 위한 서설, 메를로-퐁티의 코기토 에르고숨, 메를로-퐁티: 시간과 회화, 신오현의 메타철학 등과 편역서로는 현대 사회와 철학 철학의 문제와 논증, 지각의 현상학 등이 있다.

## 통합연구 색인

### 제1권 1호 기독교인의 역사의식

이근삼, 기독교 지성사와 기독교대학  
홍치모, 기독교 역사관  
김광수, 애국적 민족교회를 지향한 한국 초기 교회에 관한 연구  
이원설, 기독교 세계관과 시대관

### 제2권 1호 일반논문

양승훈,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앙  
서철원, 학문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의 의의  
정동섭, 기독교 고등교육  
박진경, 기독교 교육에 대한 포괄적 이해  
김기태, 현대 생명공학 패러다임의 기독교적 고찰

### 제2권 2호 일반논문

조정일, 창조개념 체계의 과학교육 영역과 목표군에의 적용  
전광식, 헬라인과 야만인  
노상헌, 성인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점진적인 개혁의 필요성  
양승훈, 과학연구의 동인 소고

### 제2권 3호 일반논문

권혁봉, 역사와 교회  
조상국, 크리스찬 경제학자로서의 학문연구  
양승훈, 현대 과학정신과 기독교적 대응  
조호연, 기독교 역사학의 기본 원리와 그 과제  
조무성, 기독교 문화형성 -기독교 학문, 직업공동체를 중심으로

### 제2권 4호 일반논문

허문영, 통일소고  
이대환, 지대세계의 개념구조에 대한 접근  
노영상, Karl Barth 신학에 있어서의 영성과 사회참여

고왕인, 기독교와 토지공개념  
김장역, 기독교와 환경오염  
서민호, 기독교와 유전공학

### 제3권 1호 일반논문

이재율, 기독교와 경제정의  
권진혁, 창조론 연대기에 대한 비교연구  
조성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성서적 비평  
양승훈, 기원문제에서 초기상태 불확실성 가정  
박진경, 참교육과 크리스찬 교사

### 제3권 2호 일반논문

조성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성서적 비평  
조규남,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역설적 제언  
제양규, 기독교 문화운동의 올바른 방향과 한국에서의 기독교대학  
주경식, R.E. 레싱의 드라마; 현자 나탄(Nathan der Weise)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박진경, 학교교육과 교회교육의 차이점  
이대환, 회년사상과 지대공수론

### 제3권 3·4호 일반논문

헤레즈마, 통계학의 기초에 대한 기독교적 분석  
김중락, 역사에 있어서 자유, 법칙, 그리고 섭리  
권진혁, 창조론 연대기의 정립에 대한 고찰  
이광원, 기원에 관한 열역학적 논의에 대한 소고  
조성표, 경제체제에 대한 성서적인 원칙들

### 제4권 1호 문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김봉균, 기독교 문학의 본질과 방향  
C. S. Lewis, 기독교와 문학  
박춘덕, 한국 현대시에 있어서의 기독교 정신의 수용  
박영희,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전광식, 하나님에 관한 문학적 표현  
일반논문: 허문영, 기독교 정치관 소고

### 제4권 2호 가난과 부요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대천덕, 성경 속의 가난

이건창, 가난과 그리스도인의 경제원리에 관한 소고  
이상규, 성경에 나타난 부요의 양면성  
오정수, 성경적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원리  
조상국, 성경적 경제윤리와 현실적 가능성  
전광식, 가난과 부요의 지편

#### 제4권 3호 테크놀로지와 생태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김경천, 미래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이광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평가와 환경과의 관계  
양승훈, 생태학적 위기와 청지기직  
김농오, 창조신앙과 기독교 환경론  
전광식, 생태학적 철학과 윤리학의 최근 동향

#### 제4권 4호 기독교대학과 교육에 대한 전망

이근삼, 기독교대학의 신학적 기초  
문선재,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육  
J.B.Hulst, 기독교대학의 세속화  
김성수, 학교 및 학교교육에 대한 성경적 조망  
양승훈, 현대 학문정신 비판

#### 제5권 1호 기독교 철학의 회고와 전망

Arthur Holmes, 신적 로고스와 창조의 선함  
양승훈, 어거스틴에게 있어서의 신앙과 이성  
전광식, 존 칼빈에게 있어서의 기독교 철학  
강영안,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이론적 사유의 초월적 비판'  
오의석, 성경적 조형관

#### 제5권 2호 기독교 사회학의 기초

이보민, '사회'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모색  
R.L.MacLarkey, 기독교 철학적 관점에서 본 사회학 이론  
Paul Marshall, 조작주의와 조작화에 대한 최근 몇 가지 관념들  
양승훈, 예수님은 혁명가였는가?  
강수택,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성찰  
이대환, 가치이론에 대한 성경적 접근

#### 제5권 3호 기독교 대학의 신학과 세계관

대천덕, 미숙한 신학의 위험성

김성수, Dort, Potchefstroom대학의 신학과 세계관  
양승훈, Wheaton대학의 신학과 세계관  
강영안,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신학과 세계관  
조상국, 복음주의와 자본주의  
박정윤, 창조적 투자론

#### 제5권 4호 최근 과학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R.H. Bube, Seven Patterns for Relating Science and Christian Faith  
양승훈, 과학사 연구의 한계  
권진혁, 기독교 역사관에서 본 현대과학의 위상  
김기태, Human Genome Project와 생물학적 환원주의  
이광원, 신과학운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 제6권 1호 기독교미술의 원리와 과제

오의석, 현대 기독교미술과 세계관  
전광식, 십자가 상징의 예술철학  
Jörg Traeger, 자연이라는 교회  
이연호, 한국기독교미술의 토착화  
김은진, 현대 예술에서의 참된 인간성의 모색

#### 제6권 2호 기독교와 정치

이문식, 예수의 정치  
백종국, 한국기독교인의 정치의식  
허문영, 한반도 통일과 우리의 과제  
추태화, 억압의 정치와 기독교 문학  
전광식, 인종차별과 신학사상  
일반논문: 조성표, 성경의 경제관  
Robert L. MacLarkey, Eros and Agape in the Sexual Ethics of Helmut Thielicke

#### 제6권 3·4호 첨단과학과 테크노피아

전광식, 대전 엑스포와 기독교적 관점  
김정한, 첨단과학의 의미  
김남득, 최근 첨단과학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김영걸, 현대기술과 그리스도인의 대응  
양승훈,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미래산업  
박인용, 테크노피아와 하나님의 나라

일반논문: 정충영, 성경에 근거한 기업윤리의 확립

### 제7권 1호 현대사회와 기독교 대학

John B. Hulst, 기독교대학이란 무엇인가?

John W. Cooper, 개혁주의 학문과 포스트모던 다원주의의 도전  
강용원,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Donald Oppewal, Confessions of Core Curriculum Revisionsist  
양승훈, 미국의 기독교 대학

일반논문: 안동규, 기업윤리 연구의 이론적 모형

### 제7권 2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전광식,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비판

김영한, 포스트모더니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박영희, 포스트모더니즘 소설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권진혁, 포스트모더니즘 과학이론

신국원, A Christian Approach towards Post-modernism

일반논문: 양승훈, 기독교와 과학

### 제7권 3호 기독교 역사학의 기초와 적용

이상규, 기독교 역사 이해

R.D. Knudsen, The Secularization of History

김중락, 신사학과 구사학

박재우, 한국사에 대한 기독교 역사학적 해석

이경아,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영국혁명

천진석, Karl löwith의 철학사상 비판 의도에 관한 일 이해(一理解)

일반논문: 이소희, 구약에 나타난 부모의 양육태도 고찰

### 제7권 4호 창조와 진화: 창조연대와 기원 논쟁

양승훈, 창조연대논쟁 I - 성경적 고찰

창조연대논쟁 II - 역사적 고찰

윤석찬, 관점가설에 입각한 창조 연대기

조정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가이아 이론

김남득, 진화하는 생명기원설

심영기, 목적원인론에 나타난 창조의 증거들

일반논문: 전강수, 경제개혁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 제8권 1호 인문과학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전광식, 신앙과 학문의 통합 - 인문과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Hendrik Van Riessen, Christian Faith and Science

김해연, 철학과 신학에서 본 진보주의의 기독교적 비판

동성식, [좁은문]과 성경의 간텍스트성 연구

일반논문: 신기영, 일제하 기독교 민족주의의 형성

### 제8권 2호 응용심리학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김상윤, 아동심리학의 기독교적 조망

이만홍, 기독교상담과 정신치료

이수용, 목회력 향상훈련이 신학생의 의사소통과 자아실현에 미치는 효과

일반논문: 한동근, 기독교 경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종홍, 국가와 교회의 영역주권에 관한 연구

### 제8권 3·4호 환경과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옥치상,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이대환, 성경적 토지법과 땅세경제

오정수, 성장과 복지의 정치사회적 진단과 대안

김진성, 환경문제와 기독교윤리

유정철,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태학

강철호, 멀티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 제9권 1·2호 성경적 원리와 경제학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김홍섭, 기독교 경제의 주요 테마에 대한 사적 회고와 새로운 모색

이의영, 고대 독점금지법의 비교연구

전강수, 헨리 조지 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의 농지개혁

일반논문: 양승훈, 현대 사조에 대한 반성과 기독교인의 대응

신기영, Protestant Church and the Non-Religious Mode of Nation-Building in Colonial Korea

### 제9권 3·4호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고찰

김유신, 기술, 정보사회, 윤리

권오병, 정보화사회의 기독교적 조망에 대한 연구주제 제안

강준근, 정보화사회의 신세대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소논문: 조용훈, 정보사회의 윤리적 도전과 기독교

이건창, 정보통신과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소고

양승훈, 정보기술과 가상대학

일반논문: 박정윤, 성경적 차입 및 대출원리

### 제10권 1·2호 성경적 기업윤리의 이론과 실제

김홍권, 전병화, 성경적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례연구

김홍섭, 다단계 마케팅의 실태와 성경적 조망

한장순, 기업재무의사결정에 대한 성서적 이해

일반논문: 강은실, 알콜중독자 부인의 영적 변화의 경험

### 제10권 3·4호 동양사상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성찰

장용수, 기독교세계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론(氣論)

박성기, 중국 성선설 소고

Ralph Smith, Zen : A Trinitarian Critique

일반논문: 전광식, 최근의 학문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한동근, 현대경제학은 청지기정신을 저해하는가

### 제11권 1·2호 현대 산업문명과 일상적 삶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

조용훈, 현대 소비문화와 그리스도인의 삶

R. MacLarkey, Technology and Anti-Technology

소논문: 양성만, 현대와 기독교적 인식론

일반논문: 문명선, 인격주의 신학에서 본 인격의학의 이해

### 제11권 3·4호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

특별기고: 대천덕, How can the Church and the Christians Prevent an Economic Crisis?

전강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대안

한동근, 청지기윤리의 위기와 경제위기

박득훈, 민주공동체를 향하여

조용훈, 신앙과 경제윤리

### 제12권 1·2호 생명복제에 관한 기독교적 반성

김남득, 생명복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병욱, 복제기술의 추세와 문제점

이하백, 생명복제 기술이 질병치료에 응용되어야만 하나?

현창기·도명술, 생명복제에 관한 기독교적 고찰

강은실·김미령, 호스피스 간호중재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제13권 1·2호 밀레니엄 전환기의 문화이론

주제논문:

김봉근, 밀레니엄 전환기의 문화이론 비판

전광식, 전환기의 세계관과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반성

김대현, 새 천년의 기독교 문화와 연극15권 2호 문화에 대한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

일반논문:

오홍철, 1907년 기독교 대부흥운동의 역사적 고찰

서평:

신명균, 새 천년 시대와 기독교 문화

현대예술과 문화의 죽음

### 제14권 1·2호 경영·경제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주제논문:

이대환, "웨하아레즈 로 티마케르 래짜미투드(레 25:23a)"의 증명

-래위기의 시장 3유형과 땅값 헛값의 과학적 이해-

권오병, 황윤민, 지혜 경영: 지식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

박정윤, A Management Model Implied In Creation

일반논문:

오성수, 양승훈, 천문학의 제사장-요한네스 케플러의 신앙과 과학

이국운,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

김민천, Imago Dei As a Basis for Theocentric Medicine:

A Critique of Genetic Determinism Pervading Today's Anthropocentric Biomedical Model of Medicine

### 15권 1호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주제논문:

정정숙, 한국 기독교 교육의 현실과 대응방안

송기창, 공교육기관에서의 종교활동의 가능성과 한계

신기영, 기독교신앙과 지식의 통합

일반논문:

길원평, 강신호, 기원관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김지엽, 삼교(三教)에 나타난 이상향(理想鄉)의 이해(理解)

박춘호, 양승훈, 분자진화학 연구에서 나타난 생물의 불연속성

### 15권 2호 문화에 대한 나타난 기독교적 세계관

주제논문:

김경완, 기독교소설 〈육호괴연〉에 나타난 기독교문화 연구

김명석, 학습자 위주의 기독교문학 수업 사례 연구

송용구, 에코토피아와 생태시

유성호, 현대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일반논문:

박정윤, Differences in Capital Structure: Strategies in Christian-managed Firms  
Compared to Secular Firms

신은주, 기독교정신과 모성보호